

교 혼

1. 우리는 제세주 수운친사님을 모양한다.
2. 우리는 유불선 합일의 대도를 천하에 전도한다.
3. 우리는 포덕천하 광제 창생 보국안민의 삼대원을 성취한다.
4. 우리는 사람 섬김을 하늘님 공경하듯이 한다.
5. 우리는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한다.

수운 ㉞ 교보

• 발행인 : 총무원장 강서조
 • 편집인 : 부총무원장 양선모
 • 발행처 : 수운교본부
 • 발행소 : 305-153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403
 • 창간일 : 수운강생 175년(1996) 11월 15일
 • 전화 / 팩스 : (042) 861-1771 · 862-9436 / 862-1772
 • 인쇄처 : 삼성디자인기획 042 221-3111
 • 홈페이지 : http://www.suwoongyo.or.kr

수강189년 본부하계수련법회 성료

8월 7~8일 (1박2일)



▶수강 189년 본부하계수련법회 개강식

사에서 강서조 총무원장은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교인에게 격려와 치하를 표시하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이찬구 법사원장, 김석주 감리원장의 격려사가 있었고 오전까지 수행을 마친 후 오후 1시부터 이찬구 법사원장의 교리와 역사 강의에 이어 오후 2시부터 김석주 감리원장의 성경신 탐구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저녁공양 후 분임토의 및 발표시간에 이어 도솔전에서 참석자 전원이 공양을 올리고 축원기도를 병행하였다.

수운교인의밤 행사에는 김옥현 교회부장의 사회로 만성당에서 촛불을 밝히고 궁을도행을 하며 삼대원의 속득성취를 기원하고 각자의 소원성취를 기도하며 “수운교인 만세!” 삼창을 하고 첫날의 막을 내렸다.

2일차 8월 8일은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하여 삼단을 참배한 후 오전 10시 도성암에 도착하여 법일예식을 병행하고 오는길에 보령지부를 참배한 후 본부에 도착하여 귀가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백중 위령제 봉행

8월 24일(음 7. 15) 화요일 오전 10시 본부 법회당에서 남녀교인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중위령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전국 각 지부에서도 동시에 봉행하였다.



총무원은 8월 7일(토)부터 8월 8일(일)까지 1박2일 동안 본부 법회당에서 본부 및 국내교인들을 대상으로 “수강189년 하계 수련법회”를 개최하였다. 오전 10시 참가자 66명이 등록을 마치고 연록색 티셔츠로 복장을 통일한 후 법회당에서 개회식을 갖었다. 대회

조국평화통일축원 3·7 특별기도 봉행

- 일시 : 189. 10. 4 ~ 10. 25(21일간)
- 장소 : 본부 봉령각 및 지부 천법당



▶하계수련회(본부 법회당)



▶보령지부를 참배하고



▶도성암에서 법일예식을 마치고

LA행사

겨레얼살리기 미주지역본부 현판식

겨레얼살리기 운동본부(이사장 한양원)는 지난 6월 4일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미국 서부지



현판식을 마치고 박준환 시우스베일로대학 총장과 한양원 이사장(오른쪽)이 악수를 하고 있다. 한이사장 오른쪽부터 김상일 LA회장, 한명 건너 김재범 박사, 이찬구 겨레얼 본부 기획국장, 인태운 겨레얼 본부 총무국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LA 문화원장 대독) 박준환 겨레얼본부

역(로스엔젤레스) LA한국교육원 1층(680 Wilshire Place)에서 로스엔젤로스 동포 200명과 김재원 LA문화원장, 박준환총장, 윤길상목사, 정기래박사, 김재범박사, 정병모 재미중소기업회장, 그레이스 한여성경제인회장, 3.1 독립투사 유족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겨레얼 살리기 미주지역본부(본부장 박준환 총장) 현판식을 갖었다.

1부행사 개회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소개 한양원 이사장의 개회사

미주지역 본부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재범박사(전 캘리포니아 국제 문화대 교수 마하선원 원장)의 “인류문명의 전환과 동양문화의 가치”라는 기념 강연과 서훈정의 판소리, 사물놀이패 등의 공연등이 있었다. 본 행사를 통하여 미국 동포들에게 조국과 겨레얼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우리 문화를 통해 서로가 민족의식을 공유하고 한민족의 구성원인 미국동포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각성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㉞

겨레얼본부, 교토에서 이충위령제 봉행



이찬구 법사원장

한양원이 주최한 ‘이충 위령제’가 봉행되었다. 이충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조선인 12만여 명의 귀와 코를 묻은 무덤이다. 왜군은 전리품으로 무거운 머리 대신

8월 11일 오전 10시, 일본 교토(京都) 耳塚(귀무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이사장

부단장, 김종호 오사카 문화원장, 권오훈 교토교육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민단소속 동포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이번행사에는 겨레얼백일장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다해, 남아라 두 학생이 참가하였다. 본부에서는 박성기 이사, 왕정기 이사, 성재업씨, 임태운 총무국장, 이찬구 수운교법사원장, 장우석 교장선생, 박광영 회장 등 20명이 참가하였다. 일본 왕족으로는 처음으로 나온



나시모토 다카오(梨本隆夫)씨는 헌작(獻爵·잔을 올림)·헌화하고 조상의 잘못을 사과하였다. 나시모토씨는 일본 왕가(王家)의

요쿠니(豊國) 신사가 있다. 무덤은 1969년 일본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2007년부터 해마다 광복절에 즈음하여 열리고 있는 위령제이지만, 올해 의미가 각별하다. 이번 현판에는 한양원 이사장, 일본인 나시모토씨, 주충남 문화부 사무관이 나와 헌작을 하였고, 박성기 이사가 독축을 하였다. 내빈으로는 기타다 교토시청 문화재보호과장, 왕정일 민단 교토지방본부단장, 박영철 민단오사카본부

11개 가문 중 하나인 나시모토미야(梨本宮)의 6대 종손, 영친왕비 이방자 여사(1901~1989)가 그의 고모 할머니이다.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나시모토미야 기념재단은 한일갈등병합 시기에 신사에 합장된 조선인의 위패와 유골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사업과 한국에 있는 일본인 유골을 일본으로 송환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4면에 이어 계속

설/교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교인들은 가족처럼”이라고 늘 말합니다. “의심암귀”란 말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날 어떤 사람이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여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뒤 자기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그 아끼던 것이 책이든 보석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이 더해지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친구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 전에 그책을 빌려보고 싶었던 친구!
- 그반지를 보고 이쁘다고 하면서 자꾸쳐다보던 친구!
- 요즘 사업이 잘 안되어 돈이 궁해보이던 친구!

그들 모두에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가장 의심을 두었던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사람이 나를 힐끗 쳐다보고 바쁜일이 있다면서 서둘러가는것이 꼭 자기를 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욱 의심을 하게 된다.

음, 그대 바로 너였구나 하고 도둑으로 단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구를 정리하다가 그물건을 찾았습니다. 너무 잘 깊이 두었던것을 깜빡 잊고 공연히 남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의심했던 것을 아무도 모른다. 그저 나만의 생각이었던것 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아닙니다.

바로 신앙인의 금기사항인 마음으로부터 지은 죄업이 되어 마음속에 이미 깊숙이 내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많은 의심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자기 가족은 한사람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가족처럼 생각했다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사님께서서는 사람대하기를 하늘님 대하듯 하라 했건만 “교인은 가족처럼..”말은 쉽지만 실행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생을 위하여 자아를 초월한 천사님, 부처님, 예수님 등 성현들의 가르침을 받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기위하여 믿고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동안 어디까지 왔는가? 가령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 1 아주 어린아이에게 “애야 아빠가 좋으나 엄마가 좋으나”하고 물으면 “엄마가 좋아요”(그럴 수밖에 자주보고 관심을 더 가져주니까)
- 2 조금 자란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주변을 돌아보고 아빠가 안보이면 엄마가 좋다고 하고 엄마가 안보이면 아빠가 좋다고 한답니다.(나름대로 지혜가 포함된 선택)
- 3 이제커서 성숙한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누구도 다 소중하고 버릴 수 없다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중용의 도가 트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켜보면 저는 지금 아주 어린아이의 대답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천사님의 유훈에 따라 성·경·신을 다한다면 보다 성숙해질 것이며 “중용의 도”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천사님께서 일찍이 도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서투른 글 솜씨가 비록 도의 미묘한 뜻과 정확한 근거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사람을 바로잡고 품행을 닦게하여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있어서는 어찌 그릇될 여지가 있으랴? 천지의 무궁한 이치와 도의 무한한 원리가 이글에 실려있다. 삼가 이글을 받아 나를 따르라 그러면 마치 “단맛이 다른맛과 어울리기 쉽고 흰빛같이 채색을 받기 쉬운듯이 도를 닦기 쉬운 것이다.” 내가 지금 도를 즐기고 흠탄을 금할 수 없어서 이처럼 사리를 분별하고 밝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일깨워준다. 깊이 음미하고 도의 깊은 묘리를 잃지 말아라』

이치를 깨닫기 위하여서는 나의 믿음이 한결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잊지말고 수도에 전념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에 앞장선다면 천사님의 가호로 우리의 바라는 바가 성취될 것입니다.

수운강생 189년(2010) 음 7월 21일

수운교 총무원장 강서조합장

화/순/지/부 산신각 낙성 및 요사채 준공

화순지부(지부장: 송방언, 정위사: 송선호)는 지난 8월 15일(음 7. 6) 일여년의 공사 끝에 산신각(3평)과 요사채(25평)을 준공하고 “산신행화 점안 법회와 요사채 준공식”을 갖었다. 이날 법회에는 강서조 총무원장, 제주 감무원장 및 각 지부장, 정위사 등 200여명이 성황을 이루었으며 총무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준공식을 갖게 됨을 축하하고 그동안 교인들의 노



고에 감사함을 표하였으며 남은 일들이 천사님의 가호아래 잘 마무리 되기를 기원하였다. 금번 공사는 교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약 일여여원이 소요되었으며 모든 작업 공정에 교인들의 봉



사로 마무리 되었다. 화순지부는 수강 146(1967 정미) 13평의 천법당을 건축하고 선교소를 설치한 후 166(1987 정묘)방화로 인한 전부 소실된 천법당을 수강

167(1988 무진 9. 15) 교인과 임원들이 일심동령이 되어 정성어린 회사와 노력봉사로 현재의 28평 천법당을 중건 후 천단과 삼불상, 지장, 신통탱화, 사성위패와 함께 봉안하고 낙성식을 봉행한 이래 종교용지 199평 대지 42평 천법당 28평을 수운교 재단법인에 헌성하여 재단설립 기본재산에 편입되었다. ㉞

수운교청정봉사단 창단

제주감무원(감무원장 : 김성주)은 제주각지부 교인들 150여명의 단원을 구성하여 수운교 청정봉사단을 창단하고 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에 제주시 춘강 장애인복지관에서 발대식을 갖었다. 봉사단 총재는 제주감무원장 김성주, 지도법사에는 봉개지부 김석보 정위사, 고문에는 김문자(삼광사), 장연수(신전) 교인이 추대되

었고 봉사단장에 봉개지부 김옥산 교인이 추대되었다. 본부에서는 총무원장, 감리원장, 부총무원장, 교화부장 등이 참석하였고 제주지사 우근민, 국회의원 강창일, 제주교육감 양성언, 제주도의원 4명 등 지역유지 및 교인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㉞

■ 수운교청정봉사단 정관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단은 수운교 제주감무원 산하 수운교 청정봉사단이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 단은 수운교 교인으로 하여금 불천심 일원의 성경신과 사인여천 정신으로 수운천사님의 사상을 바탕으로한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하고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자비봉사와 수운교 교인 포덕에 그 목적을 둔다.
- 제3조 (사무소) 본 단의 사무소는 제주시 소재 수운교 지부에 둔다.
- 제4조 (사업) 본 단은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불천심 일원으로 모든 이의 성경신을 위한 사업
 - (2) 사인여천을 바탕으로 한 정토사회구현에 관한 사업
 - (3) 독거노인 및 불우청소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 (4) 교인들간의 화합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5) 기타 수운교 발전을 이한 모든 사업

제2장 단원 및 조직

- 제5조 (자격)
 - (1) 본 단의 단원은 수운교 교인 및 그 가족으로 한다.
 - (2) 단원은 가입연령은 만 25세부터 만 62세

- 까지로 하며 만 64세까지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 (3)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의 고문을 들 수 있으며 단장을 역임한 단원은 만 64세가 넘으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6조 (권리와 의무)
 - (1) 권리 : 단원은 제6조 (1), (2)항의 회의에 참석 발언권과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2) 의무 : 단원은 회비 납부와 정관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본 단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 동참하여야 한다.
- 제7조 (임원) 본 단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총 재 : 1인
 - (2) 지도법사 : 1인
 - (3) 고 문 : 약간명
 - (4) 단 장 : 1인
 - (5) 부 단 장 : 8인(남 4인, 여 4인)
 - (6) 감 사 : 2인 (남, 여 각1인)
 - (7) 총무부장 : 1인 총무차장 : 2인
 - (8) 재무부장 : 1인 재무차장 : 2인
 - (9) 분과위원장 : 8인 (포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보리 - 각 팀당 간사 3인)
 - ※ 간사는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제8조 (임원선출 및 선임) 본 단의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및 추대, 선임한다.
 - (1) 총재는 수운교 제주감무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 (2) 지도법사는 임원회의에서 추대한다.
 - (3) 단장, 부단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총무, 재무 각 분과위원장은 단장 및 임원

- 진에서 추대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한다.
-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 (임원의 의무) 본단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재와 지도법사는 본 단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지도 및 지원을 한다.
 - (2) 단장은 본 단을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보조하고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함에 있어 연장자 순으로 한다.
 - (4) 감사는 본 단의 업무 집행 사항과 회계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5) 총무부장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집행하고 각종 회의 행사에 관한 계획 및 기록유지를 관리한다.
 - (6) 재무부장은 회비수납과 찬조금 및 수납금을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장부 일체를 관리한다.
 - (7) 각 분과위원장은 본 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해당분과의 실무를 책임진다.
 - ※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여 해당분과의 각종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 (8) 본 단은 자체 특별활동 행사를 할 시는 지도법사에게 보고, 논의한다.

경 전

[龍潭遺詞]

용담유사

교훈가(敎訓歌)

- 경신년 지음 -

11 너희라 무슨팔자 불로자득 한단말가
不勞自得

해음없는 이것들이 날로믿고 그리하나
나는도시 믿지말고 하늘님만 믿어서라
네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 하단말가
捨近取遠

내역시 바라기는 하늘님만 전혀믿고
해몽못한 너희들은 서책은 아주폐코
解夢 書冊 廢
수도하기 힘쓰기는 그도또한 도덕이라
修道 道德

문장이고 도덕이고 귀어허사 될까보다
文章 道德 歸於虛事

열세자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하며
萬卷詩書

심학이라 하였으니 불망기의 하였어라
心學 不忘其意

현인군자 될것이니 도성입덕 못미칠까
賢人君子 道成立德

이같이 쉬운도를 자포자기 한단말가
道 自暴自棄

애달다 너희사람 어찌그리 매물하고

탄식하기 괴롭도다 요순같은 성현들도
歎息 堯舜 聖賢

불초자식 두었으니 한할것이 없다마는
不肖子息 恨

우선에 보논한 도리 을을 이내회포
于先 道理 鬱鬱 懷抱

금차하니 난감이요 두자하니 애달해서
禁 難堪

강작히 지은문자 귀귀자자살펴내어
強作 文字 句句字字

방랑지심 두지말고 이내경계 받아내어
放蕩之心 警戒

서로만날 그시절에 팔목상대 되게되면
睚眦相對

즐겁기는 고사하고 이내집안 큰운수라
姑捨

이글보고 개과하여 날본듯이 수도하라
改過 修道

부디부디 이글보고 남과같이 하였어라
너희역시 그러다가 말래지사 불민하면
未來之事 不敏

날로보고 원망할까 내역시 이글전해
효험없이 되게되면 네신세 가련하고
效驗

이내말 헛말되면 그역시 수치로다
羞恥

너희역시 사람이면 생각하고 생각할까

<다음호에 이어서 게재합니다>

/ 2면 **겨레일본부, 교토에서 이충위령제 봉행** 이어서 계속

위령제는 헌 작에 이어 염경애 명창이 판소리 주모시로 낭독했다.



위령무

“400년 동안 타국 땅에 묻힌 이 원통한 심정을 어찌 다 말로 하리오...”



염경애 명창

우리 가락과 어우러진 애달픈 헌시가 울려 퍼지자 행사장은 일순간 숙연해졌다.

이어 정어람 우리춤연구회 단원(김형신 외2인)들이 살풀이 군무로 원혼을 달랬다. 참석자들의 헌화로 본 의식을 마쳤다.

한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어제 일본 총리가 지난 역사를 사죄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오늘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며 “일본에서는 차마 참석하기 곤란한 행사에 함께한 나시모토 씨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일본 정부에 이종의 한국 송환을 협조해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뒤 나시모토 씨에게 성명서 전달을 부탁했다.

나시모토 씨는 “서울 남산의 단군 사당을 철거하고 신사를 세운 것 등 우리 조상이 저지른 많은 과오를 알고 있다”며 “한국인의 눈물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 2시간 넘게 진행된 행사에는 교토, 오사카(大阪)민단, 낙동지부 관계자들이 수고해 주었다. 왕청일 교토민단 단장은 “세월이 지날수록 일본인과 동포들도 미미즈카(이종)의 존재를 잊고 있다”며 “일본이 침략의 과거를 반성할 때만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한일 관계가 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부 참가단은 9일 민단교토본부를 방문하였으며, 10일과 12일에는 법륜사, 본법사, 동지사대 운동주시비, 고려미술관 등 한국관련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였고, 교토 동본원사 및 오사카 시내를 둘러 보았다.

/ 동아일보 기사참조

/ 3면 ■ ■ **수운교청정봉사단 정관** ■ ■ 이어서 계속

제3장 회 의

제11조 (회의) 본 단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성한다.

(1) 정기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매년 월 중에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결과에 따른 보고
- 예산 및 결산 승인
- 기타 본회의 주요 사항 심의

(2) 임시총회는 필요시 단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는 단장, 부단장, 감사, 부장, 차장,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회의개최는 필요시 단장이 소집하며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다음 안건의 심의 한다.

- 총회의 위임사항
- 예산책정 및 결산 심의
- 회비 부과에 관한 사항
-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수립
- 기타 필요 사항

제12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단원 출석으로 성원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재 정

제13조 (재정) 본 단의 회비 및 재정은 단원회비와 찬조금으로 구성한다.

(1) 단원회비 : 연회비는 일금_____원으로 정하고 총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찬 조 금 :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본 단의 뜻에 동참하는 모든 이에 게 받을 수 있다.

제5장 상 벌

제14조 (포상) 본 단의 제2조 목적에 상당한 공로가 있는 단원에 대하여 임원회의의 결정으로 제주감무원과 수운교본부에 상신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제명) 본 단 제2조 목적, 제6조 권리와 의무, 제13조 재정을 위반하는 단원은 임원회의에서 결정 제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며 유권해석에 의의가 있을 시 임원회의에 의결에 준한다.

제2조 (경조사) 본 단원의 경조사 축·조의금 규칙은 따로 정하여 행하기로 한다.

제3조 (시행) 본 정관은 창단총회일(수강189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신천 서진림 지부장 환원

지난 7월9일(음 5. 28) 신천 서진림 지부장님이 향년86세로 환원하셨다. 본부에서는 강서조 총무원장, 이찬구 법사원장, 김석주 감리원장이 조문을 다녀왔고 7월 13일 발인하였다. 유족으로는 부군이신 봉령군대인 양홍주님과 양정훈, 양정환씨 두아들님이 계신다. 지부장님께서는 수강 125년(1946년) 병술 1월 20일 문태규 일도지부장의 전교로 수운교 일도 지부에 입교하여 기로분관, 일도분관에서 신양수행하면서 법당중건 사업과 운영에 헌신노력하며 도화주로서 성경신을 다하였다.

수강148년(1969)부터 제주도 신천동에서 감귤농장을 경영하던 일도지부 소속교인인 서진림(서순선) 부부는 그이듬해인 경술년 1월 일전여평(감귤농장)의 대지에 천단 13평과 사무실 32평을 건립하여 포덕 교화하였다.

수강153년(1974) 갑인 6월 23일 법회당 35평과 연차적으로 종각, 성덕문(정문)을 건축하여 수강 158년(1979) 기미 12월 9일 낙성식을 거행하였으며 수강 170년(1991) 신미년 봄에 관리사와 산신각을 건축하였고 수강 175(1996) 병자 5월 15일 신도회와 전교인이 일심동령으로 법회당을 지금의 한옥팔자지붕 50평 규모로 중축중건하였다.

수강177년(1998) 기묘 5월 15일 최창진 초대지

부장이 이암하고 2대 지부장에 창설주가 취임하여 환원시까지 봉직하였으며 항상 본부종각옆 비각 설립의 원을 성취하시고자 염원하시다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시었으나 그분의 훌륭하신 원을 모든 교인들은 일심동령으로 성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진림 지부장은 생존시 본부에 크고작은 많은 회사를 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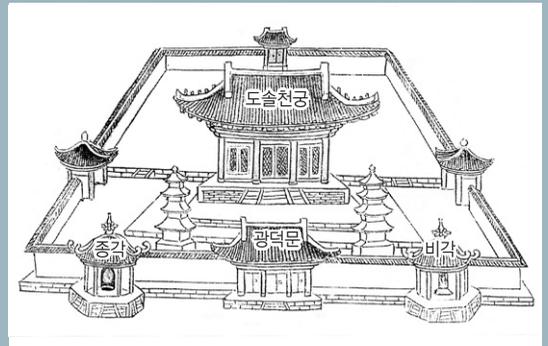
셨다. 솔밭아래 용호교(지금은 없어졌음) 법회당 입구 선인교 등의 다리를 놓아 주셨고 종각 변화, 복지관 건립등에 많은 회사를 해주셨다. 서지부장의 회향천도제는 8월 25일(7월 16일) 신천지부에서 각지부 정위사등 약 250여명이 참석하여 왕생극락을 기원하였다. ㉞

비각이란?

여화세상천지 군자군자 군자님네 우리우리 삼합대도 성취공하여주시 양위선생님 사적비를 기록할때에 여러군자님네 보고듣소 성덕군선생님과 순덕군출룡선사 사적비각을 조성하여 세울때에 어떻게 하리오 성덕 수운 출룡선사공 탄생하신곳에와 생월생시를 저저히 조사 기록하여 사적을 내세우게 하기를 일심정성을 드려 세우되 일심동령으로 한 신자를 조사하여 저저히 기록하여 올리게하라 또 양위선생님 사적은 용운가사 이십오권속에 다 있으니 부디부디 군자님네 명심불망하여 세우기를 바라노라 여화세상 군자군자 군자님네 우리우리 일심동령으로 세상천지 우리양위 선생님 사적과 우리 여러군자님 사적비를 덩그렇게 세워 억억만년지 무량공덕비를 세우되 삼합대도 공덕을 나타나게 세우세

세세생생 종교선을 이루어노면 세계만국에 우리삼합대도를 크게 선원을 나타나게 하리라 여화세상 군자군자 군자님네 생각하여보소 이런좋은 일이 어디가 있으리오.

- 출룡자 훈법에서



논·단·교·리·소·고

전보령지부장 연호자 조용기 글

포덕과 도리문답

천사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도를 전하고 도닦는 절차를 정하되 입도하는 처음에 입도식을 행하게 하시니 이는 길이 도를 지키겠다는 맹서이며, 청수를 받들게 하니 기도하는 표준을 정한것이요, 주문을 무시로 외우게 하니 소원의 영부심(靈符心)을 얻는 방법이요, 음식을 먹을때에 심고(心告)를 함은 수심정기의 인사실행 하는 것이요, 의관을 정제하고 길가면서 먹으며 뒷집주는 버릇을 금하니 이는 심신(心神)을 정양(正養)함이요, 유부녀를 방한(防寒)케 함은 음탕을 금함이요, 누워서 주문 외우기를 금지하니 이는 거만한 마음을 다스림이요, 오신채(마늘, 파, 달래, 정구지, 산마늘)를 금함은 접응접기에 애체(碍滯)되므로 도가에서는 먹지않는 음식물이요, 음주와 흡연을 금함은 공부시에 악취를 금함이요 무인어(無鱗魚)를 먹지 않음은 양생(養生)에 해로운 때문이요, 새우와 같치는 신장이 제일 싫어하고(같치는 악질이 있고, 새우는 퇴보있 성이 있음), 잉어와 자라와 도미는 용(龍) 종이므로 도가에서는 먹지 않는 것이요, 닭과 개와 돼지는 불선(佛仙)과 상극이라 우리 도의 업금물이요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리함은 사람마다 천성(天性)을 타고났고 또 마음 가운데 하늘님을 뵈심으로써이다.

이와같이 도의 설법을 하심에, 사방현사 날로 도에 드는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노소관동이며 부인도 입도 하는데 따라 무식한 사

람이 용사비등(龍蛇飛騰)의 글씨를 쓰는 이적도 있으며 시를 읊으면 귀신도 올리는 명작도 있으며, 둔한사람이 갑자기 총명하여지는 일도 있으며 용모에 화기가 나서 육체가 탐태하는 사람도 있으며 오랜 숙병이 스스로 낫는 사람도 있었다.

천사께서 이 소문을 들으시고 스스로 기뻐하시며 스스로 근심하여 가리사대 『아름답다 우리 도의 행함이며, 너의 정성이 그럴듯 하고, 너의 믿음이 높아 가니 내 심히 기쁘다. 그러나 도성덕립은 그러한 이적을 얻는데만 있지 아니하고 그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어늘 이제 도 닦는자 담연, 이적을 구하기만 힘쓸 뿐이요, 도성덕립에 들어가지 아니하니 심히 애석한 일이다.』

도성덕립은 정성에도 있거니와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거늘 도인을 지도하는자 대개 부족하고 또는 도인 되는자 직접으로 내말을 듣지 못함으로 흐르는 말을 듣고 도를 닦으며 또 주문을 듣고 외우는자 있다하니 그 여찌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으랴!

대제! 이 도는 맘으로 믿는 것이 정성이 됨이라 믿음신(信)자를 풀어보면, 사람인(人)변에 말씀언(言)자니 곧 사람의 말이라 사람의 말 가운데는 가(可)와 부(否)가 두가지 있을 뿐이니 가(可)를 취하고 부(否)를 버리되 재사심정(再思心定)하여서 바른것을 택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한번 바른것을 정한 후에는 다른 그른

말은 믿지 아니함이 믿이니 이와같이 도를 닦아 이에 정성을 이르게하라 하시다.

이 때에 제자들 가운데는 도를 닦는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답이 있으니 그 문도 대답한 말이 어찌 한이 있으리오만은 이제 그 중요한 것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 도의 중요한 문답

문 들은즉 지금 천령(天靈)이 천사에게 강림하셨다 하오니 어떠한 연고입니까?

답 무왕불복(無往不復)의 이치를 받은 것이니라 대개 운수는 가고 회복지 않는 법이없나니, 작년에 간 봄이 금년에 다시오고 금년에 간봄이 명년에 다시오는 것과같이 큰 도의 운수도 시대를 따라 감이라 혹은 성할 때도 있으며 혹은 쇠할 때도 있으므로 쇠하리만치 쇠하고 보면 다시 성한 운수가 오는 법이니 지금은 쇠운이 지극한 세상이라 성운이 장차 돌아올 것인 즉 내 이제 필연으로 돌아와지는 큰 운수를 받았다 함이라.

문 도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답 천도이니라. 무위이화(無爲而化)의 도법 그 대로를 일러 천도라 하는 것이니, 천도는 곧 전적(全的)이며 무극대도(無極大道)이므로 어떤 부분적 이치를 갖은 것이 아니라 천도는 진리의 중추임으로 모든 우상(偶像)과 허위(虛偽)를 부르짖지 아니한 우주 자연의 본체를 이룸이라.

/7면에 이어 계속

본부·지부동정

대형 저온저장고 설치

본부신도회(회장 박남형)는 복지관 옆에 대형 저온저장고를 420여만원을 들여 설치해 주었다.

본부사무실 옆 우물

신성동 동사무소(동장 이인기)는 본부 사무실 옆 우물을 헐어내고 정자식 4각정을 세워 지붕은 전통기와형 강판으로 하고 도르레식 우물로 정비하여 학습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시공은 동부스틸이 맡아 주었다.

감리원 상반기 감사 실시

감리원(원장 김석주)에서는 7월 13일~14일 양일간에 걸쳐 상반기 회계전반 사항과 교적부 사항등을 정밀감사하고 교적부의 전산화, 차량진입 통제구역설치, 봉령각 담장보수 등의 사항을 시정토록 총무원에 요청하였다.

민방위급수시설 설치

유성구청은 유성구 추목동 398-1번지 (봉령각 아래)에 민방위급수시설 설치공사를 금년봄부터 5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총사업비 6,500만원을 들여 완공하였다. 금번 사업은 전쟁,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 위험사태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원의 확보와 평상시에는 시설을 개방하여 주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활용된다.

법사원 수련대회 및 법사회의

법사원(원장 이찬구)은 지난 6월 12일 오후 2시부터 동학사 자연사 박물관입구 중정상가 2층 회의실에서 교헌개정을 위한 법사회의 겸 수련대회를 개최하였다.

공설묘지 안장영가 합동 제향제



총무원은 지난 6월 16일(음 5월 5일) 단오절을 맞이하여 공설묘지 안장영가를 위한 합동 제향제를 총무원장님을 비롯한 유가족 30여명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하였다.

봉개지부 교인 본부에 참배



봉개지부의(지부장; 임상주, 정위사; 김석보) 교인 20여명은 지난 7월 1일~2일까지 본부 삼단을

참배 후 도성암을 찾아 참배하였다.

수강 189 교역자 의식교육 및 바라춤 수련회



총무원은 8월 18일~8월 22일까지 5일동안 본부 법회당에서 교역자 의전교육 및 바라춤 수련회를 시행하였다. 8월 18일 오후 1시 30분 총무원장님을 비롯하여 23명의 임직원이 참석하여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22일 종료하였다.

단 신

* 민족종교협의회(회장 한양원)의 겨레얼살리기 운동본부가 지난 7월 31일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에서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71 4층으로 이사하여 9월 9일 입주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칠월칠석특별수련기도 봉행

8월 10일(음 7. 1)부터 8월 16일(7. 7) 7일간 본부 도솔천당에서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칠석특별수련기도를 봉행하였습니다. 수련주문은 북두주와 칠원성군 정근으로 하였으며, 입재부터 종공까지 7일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총 503명이 동참하여 성대히 봉행하였다.

제8회 민족종교 전통예술제 공연

수운교 공을 바라춤 출연



한국민족종교협의회(회장 한양원)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8회 민족종교 전통예술제가 한국문화의 집에서 2010년 8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있었다.

한양원회장의 개식사에 이어 원불교 국악공연, 쟁정유도의 영가무도, 수운교 공을바라춤, 천도교의 용담검무등 4개 교단이 출연 열연하였고 한국관소리보존협의회에서 판소리를 열창으로 찬조출연을 하였다. 이날 공연에는 회원교단 교인 및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교단에서는



60여명의 교인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수운교 공을바라춤은 4개교단중 세 번째로 출연하였다. 도솔천과 금병산을 그린 대형 걸개그림을 배경으로 청수봉전, 주문봉송, 공을도행, 바람춤의 순으로 열연하여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출연자

김영호, 김성주, 김승천, 이태화, 오형범, 이승용, 문중식, 송선호, 김현철, 조양선, 윤옥희, 김문영, 김은택, 유은숙, 유화자, 김정복, 이은숙

信仰逸話

영소장(詠宵章)의 뜻을 묻다가 굴신부동이 되다

충남 홍성에 살았던 성호 황문성(黃文性)씨는 본래 고향이 안성읍이었고 청년시절에 천도교 안성교구장으로 있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타락된 생활을 하던 중 을축년에 선생님 출세한 소식을 듣고 동년 겨울에 금병산하로 찾아와서 선생님께 승안예식을 올리고 동경대전의 영소장의 뜻을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하루는 장실 건넌방에 선생님께 황문성은 배례를 올린 후에 무릎을 꿇고 입을 열어 영소장의 뜻을 묻고자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입을 뿔 수도 없고 말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조차 움직일 수 없어 굴신부동이 되었다. 황씨는 본시 구변이 좋아서 구한말에 가어사를 지냈다는 분이다. 누구 앞에서도 말이 막힌 일이 없었다고 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말은 할 수 없으나 속으로 정신만은 맑아서 마음속으로 자문자답 식으로 영소장을 해석해 보았다. 영침녹수의 무습(影沈綠水衣無濕) 경대가인어불화(鏡對佳人語不和) 그림자가 푸른 물에 잠겼으니, 옷은 젖을 이 없고 거울에 아름다운 사람을 대하니 말은 화답할 수 없구나. 다음 귀절 야수속아번복태(也羞俗娥翻覆態) 일생고명광한전(一生高明廣漢殿) 부끄럽다 속된 계집의 번덕스런 태도이지만 고명한 광한전에 나겠노라는 뜻을 깨달았다. 이귀절을 수운선생님께서 갑자 삼월에 처형 받게 된 것을 비유해보았다. 첫 귀절은 허신참형을 받은 것이요 다음귀절은 다시 세상에 출세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상당히 흘렀다. 그때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그만큼 생각해보았으면 다 되었으니 물러가서 내일 치성에 참여하고 집에 돌아가 포덕이나 많이 하라고 하시었다. 그때야 입이 열리고 몸을 자유로 움직일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하명대로 하겠습니까. 하고 물러나왔다고 본인이 직접 말하였다. 그 후에 포덕활동을 하다가 九十세에 종명하였다.

백지의 선약으로 죽을 목숨이 살아나다

수호 이재형은 부여군 규암면 선교소의 선교사로서 교회에 매우 열렬하였다. 어느 해 양각산에 들어가 불고가사하고 삼년기도를 할 때에 설상가상으로 六,二五사변을 겪고 나니 남의 부채가 많아서 가옥전토를 팔아 빚을 청산하고 나니 생활이 곤란하여 보령 성주산에 깊이 들어가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감자와 서속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때였다. 연령은 三十세의 장점으로 때는 음력 칠월 되었는데 그 동리 집회가 있어 참석하러하기에 나가보니 부락이라해야 十호 미만이었다. 그 중 부락대표 한분이 나서서 하는 말이 “이 부락에 감자도 적어 이씨를 부른 것이요. 이 부락이 수십년 내내 도적이 한사람도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이요. 지난밤에 감자를 도난당했는데 조사를 해본결과 이씨 집앞에 감자가 떨어져 있으니 당신의 소행이 틀림없으므로 당신은 내일로 다른 곳으로 떠나시오”하고 호령하자 모든 부락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장 내쫓을 듯이 이에 합세하였다.

이재형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 정천벽력이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너무 터무니없어 가슴이 찢어질듯하여 이리저리 궁리한 끝에 다음과 같이 사정을 했다. 나는 죄가 없다해도 변명할 도리가 없으니 이십일만을 기한을 연기해주시고 그 이유는 이십일만에 도적을 잡지 못하면 내가 약속대로 이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에 승낙하는지라 임시 화는 피했으나 마음은 극도로 긴장하고 분심과 울화증이 치밀어 꼬박 칠일간을 식사는 고사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니 형용만 남은 반송장이 되었다. 약을 먹자해도 돈도 없고 시내에 걸어나갈 힘도 없어서 죽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던 중 칠일 되는 날 석양 무렵에 六十세가량의 두부인이 찾아와서 이재형에게 이 동리에 “수운선생님을 믿는 신자가 있소”하고 물음에 “예 이 동리에는 저 한사람만이 잘 믿지는 못해도 순종하는 교인입니다.”하니 부인들은 이상이 생각하면서 그러던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하며 하는 말이 우리는 서천군에 살고 있는데 동학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청수를 모시고 주송을 하는데 강령이 되면서 선생님 명령으로 성주산속에 내제자 한사람이 깊은 병이 들었으니 구해주라고 해서 왔는데 오늘저녁에 선약을 받아쓰면 차효를 볼 것입니다. 하고 하였다. 그날 저녁에 그 부인이 청수를 모시고 주송한 후 백지를 소반위에 놓고 한참 심고를 한 후 백지를 살워 청수로 탄복하니 아무런 지장없이 청수 한 그릇을 다 마시게 되고 새로 정신이 돌아왔다 그 후에는 좁쌀미음을 끓여서 한 그릇을 마시니 기운이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선약을 받는 일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그 부인들 말에 의하면 급한 때에 어느 시간에 지필묵을 구해서 영부(靈符)를 쓰리요 백지 펴고 심고하면 선약이 내린다는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선약 한 장을 탄복했더니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 부인들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고 그 후 바로 고구마 도적을 잡아내어 도적의 누명도 씻고 병도 쾌차되어 산중에서 살아나게 되었다고 이재형은 감사하였다.



논·단·교·리·소·고

5면 포덕과 도리문답 이어서

문 천도(天道)라 하오면 서도(西道)와 다름이 없나йка?

답 서도는 사람의 본성을 표준한 도가 아니므로 형식만 있고 실체가 없나니라. 그러나 운수인즉 하나요 도인즉 같으나 이치인 즉은 다르니라. 서도도 지나간 운수의 천운으로 나게 되었으며 역시 천도의 한 부분으로 된것인고로 운수와 도인즉 같음이니 비유하자면 춘하추동 사시가 한가지로 천도의 순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봄과 여름이 서로 다르고 사시 전체와 사시의 각 부분이 서로 다른것과 같으며 사람의 사지 백체가 한 운명과 한 도인 생명으로부터 났으나 그러나 생명의 전체

력의 부분력이 각각 다른것과 같이 천도와 모든 다른 도의 관계도 또한 이와 같으니 그러므로 천도는 전적이며 모든 진리의 원천이며 모든 사물의 생명인 것이다.

문 어찌하여 그러합니까?

답 우리 도는 본래 사람 성(性) 자연을 근본한 것인고로 무위이화(無爲而化)로 되는 것이니 내게 있는 하늘맘을 지키고, 하늘 기운을 받고, 하늘 성품을 거느리고, 하늘 가르침을 받으면 화기(化氣)가 자연의 가운데서 나와서 사람과 하늘이 둘이 아니요, 하늘 기운이 되며 내기운이 하늘 기운이 되어 서로 떠나지 못하는

그 이치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도로 말하자면 말이 모순이 많고 흠백(淸白)이 없을뿐만 아니라 하늘과 사람을 서로 멀리하게 한 고로 몸에 기화하는 신령이 생기지 않게되고 맘 하늘의 감화를 받지 못하게 되고로 생각은 있으며 맘에 얻는바 없고 형식은 있으나 도가 허무에 가까운지라 이것이 피차에 크게 다른 점이나.

문 도가 같다 하온즉 학의 이름을 서학이라 하오리까?

답 그렇지 아니하노라. 내 동방에서 나서 동방에서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이나 학인즉 동학이라 하는것이 옳으니라.(동학이라함은 이 유연에서 생긴 것이다.)

〈다음호에 이어서 게재합니다〉

건강상식

우리주의에 자생하는 약초 감 국



국화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소개하는 국화는 단순히 꽃이 아닌 식용으로 먹는 국화를 말한다.

국화차로 이용을 하는 것을 말린 감국의 꽃잎으로 만드는데 국화차로도 이용을 하지만 국화술이나 요즘에는 입욕제로도 이용을 하고 있다.

감국에 대해서는 옛날 중국에 항경과 장방이 중앙절에 국화술을 마시게 된 이야기에서 감국의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 현자 장방이 항경에게 9월 9일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니 온 식구가 산수유를 따서 각자의 주머니 속에 넣고 산에 올라가 국화술을 마시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항경은 장방이 시킨 대로 하여 9월 9일이 지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의 모든 가족이 죽어 있었다.

놀란 항경이 장방에게 물으니 가족들이 대신 화를 입은 것이라 하였다. 또한 국화술이 아니었다면 항경의 식구 모두가 죽었을 것이라 하였다. 그 뒤부터 중앙절이 되면

높은 곳에 올라가 국화술을 마시거나 부인들이 산수유 주머니를 차는 풍습이 생겼다고 한다.

감국은 특유한 향기가 있고 약성은 조금 달며 쓰고 차다.

효능으로는 예로부터 불로장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눈을 밝게 하고 머리를 좋게하며 신경통, 두통, 기침에 효과가 있고 눈과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눈물이 나는 것을 멎게 하며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가슴속에 열이 있어 답답한 증상, 폐렴, 기관지염, 두통, 어깨결림, 고혈압에 효과가 있으며 간기능과 충혈, 생리불순과 여드름 등 피부트러블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감국은 그 활용용도도 많은데 베갯속에 넣어두고 자면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술에 넣으면 국화주, 전을 부치면 국화전, 반신욕을 할 때에는 입욕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국화차를 만드는 방법은 1인분(4~5송이)를 찻잔 또는 다관에 넣고 100도 정도로 끓인 물을 부어 약 2~3분 정도 우려내서 마시면 된다. 이렇게 우려낸 국화는 1회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3~4회 정도 더 우려 마셔도 되고 우려낸 국화를 따로 모아서 보리차 대용으로 먹어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보리차 대용으로 먹을 때에는 꼭 세차를 해야 한다고 한다.

(세차 - 뜨거운 물을 다관에 붓고 바로 쏟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세차를 하는 이유는 차를 만들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흙시 먼지나 기타 이물질들이 혼합이 될 수가 있어 이를 씻어내기 위한 것과 차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차잎에 흡수된 습기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글 인터넷에서 발췌

계·시·판

하반기 법회안내

◎ 식망치성기도 (음)	매월 1일, 15일	오전 7시 20분	3 단
◎ 백일기도치성 (음)	매월 27일	오후 3시	법회당
◎ 인등이백일기도 (음)	8월 3일	오전 10시	봉령각
◎ 수련기도 (음)	매월 1~7일	오후 3시	법회당
◎ 법 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법회당
◎ 3·7기도 (음)	8월 27일		봉령각
◎ 교주열반일 (음)	9월 18일	오전 10시	봉령각
◎ 조왕재일 (음)	9월 29일	오후 3시	장실
◎ 용왕재일 (음)	10월 3일	오후 3시	장실
◎ 산왕재일 (음)	10월 6일	오후 3시	산제단
◎ 개교기념일 (음)	10월 15일	오전 10시	도솔천
◎ 위령재일 (음)	10월 16일	오전 10시	법회당

〈문의 ☎ (042) 861-1771〉

* 포덕성금 (189. 8. 30. 현재) 67,778,438원 입니다.

* 장학성금 (189. 8. 30. 현재) 4,346,153원 입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학선군부인 서진림 환원 (子 양정훈 신천)
- 안동후인 장덕량 환원 (子 장학선 본부)
- 도성존이윤섭 환원 (女 이은수 본부)

특성금품쾌척

◆ 현금희사

- 100만원 : 봉개지부(교인일동), 정봉연(자운한의원)
- 80만원 : 강서조 총무원장
- 30만원 : 최석재(고 엄순금 차남), 김광남
- 20만원 : 황적길(일도), 신도회, 보령지부
- 10만원 : 윤병록, 박창희, 김덕환, 이영주, 김광석, 민근홍, 조양선, 고순녀, 강선부, 오화선
- 5만원 : 김선화, 이남수, 한용성, 이장성
- 기타 : 박희문, 김영주, 김선기, 조현호

◆ 물품희사

- 백미 100kg : 봉개지부 교인일동,
- 백미 80kg : 이장성
- 한리봉 3상자 : 김민철

〈감사합니다〉

영우총보 편집 안내

영우총보는 수강113년(1934)갑술 9월 천사님의 지시에 따라 성관실행한 교인에 한하여 5대 조상부모와 처자까지 수단하여 편성한 보서입니다. 이것을 갑술보라 합니다.

그 뒤에 기해보(1959년), 임인보(1962년), 무오보(1978년) 신사보(2001년)를 편제하여 도솔천 천단에 봉안 하였습니다. (사본은 사무실에 비치함) 이와 같이 5차 하였으나 단 1회에 한하여 편제함으로서 누락자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갑술보 수강113년(1934 갑술) 현재 77세 되신분은 보서에 있으나 그 밑에 76세(1935 을해)에서부터는 기록이 무함으로 조상 부모님을 승계하여 현재 봉도인 중심으로 새총보를 할 수단접수합니다. 수단은 동사무소에서 『가족증명 확인원 1부』를 준비하여 본부는 본부사무실 총무원에 접수하시고, 지부 및 선교소는 해당 지부 선교소에 접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덕미를 납부합니다.

농협 453116-51-010348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 본부 국내 교인만 입금하고, 지부교인은 소속 지부에 납부바람

자택 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분은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042-861-1771 ◆◆